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9년 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19년 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26	27	28	29	30 
						

*한 달 동안 곁에 두고 달력으로 활용하세요!

한우자조금

2019
11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찾이슈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08

후계농을 찾아서
충북농장 전병를 대표

10

방송에서 만난 한우
전 세계에 통하다
대한민국 한우!

12

소식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
출격

18

소식
'2019년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열려

26

한우 시황
10월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Contents

2019. 11 vol. 169

04

핫이슈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08

후계농을 찾아서
충북농장
전병률 대표

10

방송에서 만난 한우
전 세계에 통하다
대한민국 한우!

12

소식①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
출격

14

소식②
'제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현장

16

소식③
'제70회 홍콩 국경의 밤'
참석

17

소식④
홍콩 언론 뜨겁게 달군
한우의 맛

18

소식⑤
'2019년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열려

20

소식⑥
'해외 비육산업 현황조사'
실시

21

소식⑦
'2019 한우자조금 전문가
자문단 회의' 진행

22

캠페인
겨울철 축사 관리 요령

23

캠페인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 요령

24

아하 그렇군요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미닝아웃
(Meaning Out)

25

건강 상담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위험성 증가
허혈성 심장질환

26

한우 시황
10월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발행일 2019년 11월 11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우리의 자랑, 한우!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우를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날씨만큼 아름다웠던 가을날의 축제 속에서
세계인들과 한우가 만났습니다.

한우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은 대한민국의 자랑, 한우를 더 글로벌하게,
더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겠습니다.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전국적인 할인 판매 및 시식 행사 진행

“11월 1일은 우리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한우를 싣껏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길 바랍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할인 판매 및 시식 행사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우에 대한 온 국민의 사랑을 더 고취시켜 한우농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우 소비 촉진 위해 전국 할인 행사 진행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등이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지정했다.

올해는 서울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메인 행사인 한우숯불구이 축제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원에서 생략되었지만, 이를 대신해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 판매에 집중했다.

“11월 1일은 전 국민이 한우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는 날”이라는 행사의 본래 취지를 지켜나가며 나눔과 맛 체험, 시식회, 할인 행사를 강화해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가 행복한 한우 먹는 날을 만들고자 했다.

기념행사의 뜨거웠던 취재 열기

지난 10월 31일에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성수점 야외광장에서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알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 광정우 이마트 본부장을 비롯해 2019년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남궁민 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현장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취재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즐겨주신다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에도 따뜻한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우리 한우 농가들과 함

께 11월 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정했다. 한우가 맛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경기 여건상 가격에 부담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부담 없이 한우를 즐기는 날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맛은 물론이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한우를 기자단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포토행사 이후에는 김홍길 회장, 민경천 위원장, 한우 홍보대사 배우 남궁민 씨, 광정우 이마트 본부장이 한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친구들과 함께 시식에 참여한 송파구 전여순 씨(58세)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우를 TV에 나오는 잘생긴 배우 분이 구워주니 더 입에서 살살 녹는다. 얼른 할인 판매하는 곳으로 뛰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한우로 불금을 보내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샀다.

전국 대형마트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

이번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할인 행사에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서원유통,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1,325개 점과 한우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 한우 등심과 안심, 불고기 등 각 부위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했다.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한우 시식코너도 운영했다.

대형 유통매장 판매 매대 바로 앞에서 시식코너가 운영되어, 소비자들을 발길을 사로잡았다. 시식에 참여한 소비자는 “씹는 맛이 너무 고소하다. 이전 무슨 부위인지 알려달라”고 묻고 “등심”이라고 하니 곧바로 판매 매대로 향해 등심을 장바구니에 마구 담았다. “한우를 배부르게 먹기는 힘든데, 오늘이 그날”이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울 숯불구이 축제는 생략되었지만, 여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한우 나눔 등의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앞으로도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에 우리 한우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의 가치를 알고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행사

경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경기도지회(지회장 이연목)는 11월 1일 남양주시청앞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한우 나눔을 진행했다. 또한 시군지부별로 나눔행사를 비롯해 맛체험 및 시식회 등을 개최했다.



충북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종범)는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한우나눔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우고기 총 750kg(2,400만 원 상당)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충남

충남도지회(지회장 최명식)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여 세종(10. 31~11. 3)과 대전(11. 1~5)에서 숯불구이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정육 및 부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한우버거 만들기 체험, 불고기 시식회 등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 내 소외이웃에게 한우나눔을 진행하며, 천안과 아산에서 청소년 맛체험을 진행했다.



전북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운섭)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전북지부와 전주시(밥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 다문화 여성 및 가정폭력피해 쉼터 등에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전남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남도지회(지회장 안규상)는 강진만 축추는 갈대축제장에서 한우 숯불구이축제를 개최했다. 한우등심과 정육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 시식회 및 한우곰탕과 육포 등을 상품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도내 소외계층에게 8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해 한우농가의 사랑을 나눴다.



강원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10월 31일 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 한우곰탕 13,300개(5,320만 원 상당)를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도내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및 태풍 피해가 있는 지역에 전달됐다. 또한 시군지부별로 나눔 및 청소년 한우맛체험, 시식회 등을 진행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알렸다.



경북

경북도지회(지회장 김삼주)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한우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인 울진, 영덕, 포항시지부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각 시군지부도 나눔행사를 진행해 한우농가의 정을 나눴다.



울산

울산시지회(지회장 정인철)는 지난 1일 오전 울주군청을 방문해 군청 광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를 전달했다. 2일에는 '요리조리 쿡북 아빠요리교실'이란 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한우요리 교실을 열었으며, 무료시식회 및 한우구입 시장 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펼쳐 한우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경남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 되기 위해 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나눔행사 및 시식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증한 한우고기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보육시설 등 총 500개 시설에 전달했으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우판매장에서 시식회를 개최해 한우 먹는 날 안내 및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제주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게 한우의 우수한 맛을 알리기 위해 제주도지회(지회장 안석찬)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우 할인행사 및 숯불구이 축제를 제주시민복지타운 인근에서 개최했다.



충북
농장

전병률
대표



“다 함께 잘 사는 한우 농가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8년째 성실하게 한우 농장에 몸 담고, 평생의 길을 우직하게 만들어가며 성실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영농후계자가 있다. 꿈은 어느 순간 정해지는 것이라 자연스레 키워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충북농장 전병률 대표를 만났다.

한우물만 18년째, 우직한 발자취

충북 청주 시내에서 20여 분을 달리면 모습을 드러내는 충북농장에서 아버지와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한우 30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병률 대표는 올해로 18년 차 영농후계자다. 현재 3,000평 축사에 300두 규모의 농장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며 해가 흐를수록 점점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전 대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우리나라에는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한국농수산대학을 통해 영농후계자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축산업 인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특성 화학교다.

“어렸을 때부터 쪽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도왔어요. 어려서부터 한우 농장에 커다란 꿈이 있었냐고 물으면,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우를 키우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으니, 익숙하고 당연한 환경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액 국비 장학금과 영농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부터 배우니 재미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농장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대표는 학교와 아버지라는 두 스승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론과 현장의 관점 차 좁히기 위해 노력해

어느 분야가 그렇지 않겠느냐만은 한우 사육에도 이론과 현장의 견해 차이는 확연하게 존재했다. “초반에는 아버지와의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 체득



하신 방법을 고집하시면서, 그동안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손발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평생 현장에서 습득한 지혜를 접목시켜 나갔다.

부자 간의 손발이 맞기 시작하니 결과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폐사율은 낮아졌고, 성적은 좋아졌다. “아버지와 저는 소 한 마리당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통일했어요. 저희는 수정을 안 하고 임신된 소를 사와서 1년에 두 번 혹은 2년에 세 번 정도 출하시킵니다. 외부 입식을 통해 밀소 값을 낮추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마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 많이 땀 흘려

세상에는 노력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전병률 대표는 사양관리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젊음의 패기로 더 많이 땀 흘리는 것을 택했다고 말한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움직이는 만큼, 좋은 사료를 먹일 수 있고, 생산비는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실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양관리 팁을 한 가지만 말해달라는 요청에 전 대표는 ‘미생물’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한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우 사육과 미생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잘 발효시킴으로써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우리 한우 농가가 되었으면

전병률 대표는 충북 지역 영농후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나가며 정보와 상호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한다. 전 대표는 훗날에도 한우 사육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인근 농가들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식을 찾아 보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일으켜 발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한우 농가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 있다면 친자 감별이나 출생일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귀한 우리 한우가 소비자의 식탁 위에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양분 삼아 전병률 대표는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 차근 꿈을 키워가고 있다.

“우선 3년 안에 500두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사는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한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조하는,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전 세계에 통하다 대한민국 한우!

10월에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우의 매력이 전파를 탔다.
한우의 우수한 영양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한우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방송을 타며 한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통하는 최고의 맛임을 알렸다.
글로벌했던 한우의 TV 속 활약상을 함께 확인해보자.

1 MBC EVERYONE <대한외국인> 10월 30일 방송



한우에 특히 많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은 뭐다~? 올레산이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활약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 10월 마지막 주 방영분에서는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약 6분간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고정 패널인 외국인 방송인들을 비롯해 MC인 김용만을 비롯해서 개그맨 박명수, 가수 백지영, 신지, 황치열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1단계 문제로 출제되어 “한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한우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이 불포화지방산은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 답을 맞추기 위해 출연진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는 한우자조금의 전문가 자문단 중 한 분인 서울대학교 조철훈 교수가 등장했다. 조철훈 교수는 “한우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이 바로 ‘올레산’이다. 한우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이 되었다. 올레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 및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레산은 소고기의 풍미를 좋게 하고 지방의 녹는점을 낮춰 조직감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한우의 우수성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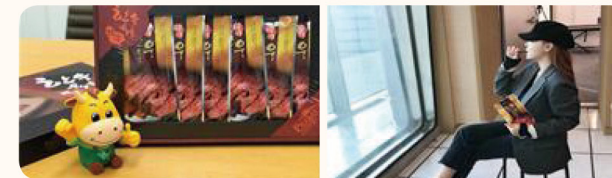
2 KBS 1TV <노래가 좋아> 10월 5, 12, 19, 26일 (4회) 방송



노래가 좋아! 한우가 좋아!

10월 한 달 동안에도 KBS 1TV ‘노래가 좋아’의 하모니상 상품으로 한우선물세트가 등장하며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BS 1TV ‘노래가 좋아’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영되며 가족 단위 시청자들에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말 아침의 인기프로그램이다. 고단한 일상에서 지쳐있는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응원, 화합의 하모니를 전한다는 취지의 방송이다. 노래를 사랑하는 가족가 따뜻하게 담겨 웃음과 눈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방송으로 한우의 주 구매층인 주부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한우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과 최고의 하모니를 내는 팀에게 증정되는 상품으로 증정되며 행복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하여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

3 SBS 러브FM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10월 21일부터 (월~금요일) 방송



한우 육포가 훨훨 나르샤~

“매일매일 청취자 여러분에게 스페셜 한우 육포를 팡~팡~ 싸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20분부터 4시까지 SBS 러브FM을 통해 송출되는 라디오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 스페셜 선물세트로 한우육포세트가 등장했다. 1주차는 ‘한우’로 2행시를 지어준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추첨시에 DJ나르샤의 기분 좋은 목소리를 통해 “한우 농가에서 한우 육포세트를 드립니다”라고 다시 한 번 고지되었다. 한우육포세트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의 공식 인스타그램인 ‘날샤그램’에도 업로드 되기도 했다. 한우육포세트 옆에 한우자조금의 저금통이 함께 놓여져 하누랑 캐릭터와 한우육포를 동시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한우 육포라니 너무 고급지다”, “저 귀여운 한우 캐릭터는 뭐지?”, “매일매일 중복 투표해도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나르샤가 직접 한우 육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먹방’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며 다시 한 번 노출되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1월 한우자조금 TV·라디오 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표	요일 및 횟수	시간
KBS1	인간극장 前	월요일(4회)	7:49
	노래가 좋아 前	토요일(3회)	10:29
	6시 내고향 前	금요일(5회)	17:5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前	화요일(4회)	9:59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前	일요일(4회)	13:19
	동물의 왕국 前	목요일·금요일(6회)	17:29
KBS2	9시 뉴스 後	화요일·목요일(5회)	21:59
	주말연속극 前	일요일(2회)	19:54
	월화드라마(재) 前	목요일(1회)	20:29
	영화가 좋다 前	토요일(5회)	10:19
	KBS 앙코르(재) 前	토요일(4회)	10:59
CBS 표준 FM	KBS 뉴스 前	목요일(1회)	11:59
	김현정의 뉴스쇼 2부 後	월요일~금요일 (총 22회)	8:34

11월 한우자조금 케이블 공익광고 스케줄

채널	편성표	요일 및 횟수	시간
연합뉴스TV	토요와이드	토요일(5회)	11:00~12:30
	뉴스센타 12	월요일~금요일(21회)	11:35~12:35
MBN	자연스럽게(재)	화요일(4회)	11:40~13:00
	현장리포 특종세상(재)	월요일(4회)	13:00~14:10
	모던 패밀리(재)	금요일(3회)	14:10~15:30
MBC(부산)	-	1일 2회 (60회)	-
TBC(경북)	-	1일 2회 (60회)	-
KBC(광주)	-	1일 3회 (90회)	-



1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 출격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한우를 외치다

미식에는 국경이 없다.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접했던 음식이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기도 할 정도로 타국에서 만난 음식의 힘은 강하다. 지난 10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선사했다.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피부색도 국적도 상관없이 ‘우리 한우’로 하나 되는 현장이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이국적인 것의 만남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서 열린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우리 한우가 출격했다. 해마다 백만여 명의 엄청난 인파를 동원하고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전 세계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현지의 먹거리와 문화 공연이 총출동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우 사랑으로 하나 된 축제 현장

한국 전통문화와 해외 각국의 이국적인 문화가 함께 앙상블을 이루는 축제의 현장인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한우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한우자조금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한우자조금 부스에서는 한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는데 외국인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통역 스태프들이 배치되었다. 또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았던 만큼 한우 인형탈은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 한우자조금 부스 앞은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방문객들과 한우 인형과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방문객들로 이틀 내내 북적였다.

뜨거운 호응 속 울려 퍼진 “한우 화이팅!”

인파로 가득 메워진 이태원로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한우 파이팅!!!!”이라 외치는 저렝저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트 이벤트’에서 한우를 크게 응원해주는 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방문객들은 호탕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고 한우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외쳤다. 다트를 안심 부위에 맞추면 ‘채끝 셀프 시식권’을 증정하는 다트 이벤트에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커플룩을 입고 이벤트에 성공해 훈훈하게 채끝을 구워 먹는 모습에 방문객들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진짜 축제 같다”, “역시 한우는 언제나 옳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용산구에 사는 김정임 씨(56세)는



“이태원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 같아서 집 근처인데도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데 축제를 한다면 와봤다. 외국인들이 한우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걸 보니 내가 더 뿌듯하다. 다른 부스는 판매에 급급한데 한우는 여러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루에 4타임 진행된 한우 무료 시식 이벤트를 위해 시식이 진행되기도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다. 사회자가 대기 인파를 향해 “한우가 왜 이렇게 변함없이 맛있는 줄 아시냐”며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한우이력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대기하고 있던 방문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경청했다. 한우이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방문객은 “한우가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한우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는 몰랐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라니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힘세고 강한 한우, 한우를 이겨라!

또한 한우자조금의 2019년 공익광고인 ‘함께 살아가는 가치’ CM송에 등장하는 울동을 따라 하는 이벤트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우 캐릭터와 팔씨름을 하는 ‘한우를 이겨라!’ 이벤트도 진행됐다. 팔씨름 대회의 인기는 단연 최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 내용에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팔씨름에서 이기면 한우 채끝을 제공해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도 우리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우 채끝 굽기 최강 커플전’은 참가한

커플들에게 채끝살, 아스파라거스, 마늘, 파프리카, 버섯, 브로콜리를 제공하고 커플이 각자 한 손씩만 사용해 가장 의미 있고,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게임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 맛있는 냄새의 정체는 뭐냐며 방문객들이 물리기도 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좋은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우리 전통문화와 다양한 외국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한우 또한 맘껏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한우자조금은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2

‘제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현장 맛의 국가대표, 우리 한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국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형형색색의 단풍옷을 꺼입은 남산이 최고의 맛과 향으로 물들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어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인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의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우리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맛있는 행복을 선사한 남산의 추억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가 열렸다. 남산 한국의 맛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축제로 다양한 한국의 요리 및 맛집을 소개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맛을 알리는 축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으며 가을 대표 미식축제로 자리 잡은 이 축제에는 올해에는 나흘간 7만여 명이 다녀갔다. 다양한 요리부터 스타 맛집, 퓨전 맛집까지 30여 개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케이푸드(K-FOOD) 축제의 현장에 우리 한우가 함께 했다.

한우와 함께 스마~~~~일!

“한국의 맛인데 한우를 빼고 논할 수 없지!” 한우자조금 부스에서 열린 한우시식회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줄에 동참하던 관람객이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한우 시식회의 시작을 알리기 무섭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치익~~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한우에 내외국인 관람객들이 모두 열광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프랑스에서 온 시야 씨(22세)는 한우를 맛본 뒤 “한국의 문화에 흥미가 많다. 케이팝(K-POP)과 함께 케이푸드(K-FOOD)도 매우 좋아한다. 오늘 맛본 부드럽고 달콤한 양념의 한우불고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한우를 먹으러 또 한국에 올 생각이다. 한국에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늘었다”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축제 나들이를 나왔다는 서울 광진구의 하연숙 씨(63세)는 “손녀딸이 한우 마스크트랑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왔다. 한우는 씹는 맛이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아서 5살 손녀에게도 자주 먹인다.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리 한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우자조금 부스에서는 한우자조금과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한우자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레크레이션 형태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 뒤, 바로 이어지는 OX퀴즈를 통해 한우자조금과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각인시켰다. 한우 OX퀴즈의 최종 3인까지 들어갔다가 아쉽게 탈락한 최봉규 씨(62세)는 “경기도 안성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다. 한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맛 중에서도 국가대표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친구들도 “그럼! 국가대표 중에서도 금메달이지!”라며 함께 웃었다. 한우 부위에 다트를 던져 한우 홍보 한우 캐릭터와 팔씨름을



하는 ‘한우를 이겨라!’ 이벤트와 ‘한우야 사랑해!’를 외쳐서 나온 데시벨 수치에 따라 한우자조금 홍보 경품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우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했다.

10월 31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서울중구청 서양호 구청장, 글로벌K-FOOD협회 윤인자 회장과 함께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이 참석했다.

개막식 후 함께 참여한 주요 인사들과 한우자조금 부스를 찾아 한우를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데 일조했다.



한우자조금 마스크트 하누랑의 귀여운 시선 강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축제인 만큼 모든 연령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전통 떡 만들기 체험과 한식의 유래와 역사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K-FOOD 도전 골든벨 등 참여형 이벤트도 풍성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K-FOOD 도전 골든벨에 한우자조금의 마스크트인 하누랑이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모았다. 행사 진행 MC는 “골든벨 1등 상품이 한우인데 하누랑이 1등 하면 동족을 상품으로 받게 되는 격!”이라고 소개해 청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남산 한국의 맛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맛’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한우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즐거웠기를 바란다”며 “한우자조금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를 일상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우리 한우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



3

‘제70회 홍콩 국경의 밤’ 참석

홍콩 각계 유력인사에게 한우의 매력 알려

제70회 국경의 밤 리셉션에서 다양한 한우 요리 선보여

한우자조금이 지난 10월 16일 콘래드 홍콩에서 열린 ‘제70회 국경의 밤’ 행사에서 우리 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한우의 매력을 알렸다. 홍콩과 한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한국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제70회 국경의 밤’ 행사에는 Teresa Cheung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 총리, Song Ruan 주홍콩 중국외교부특파원공사 부대표, 각 부처 고위인사 등 홍콩 유력인사와 홍콩 거주 한인 및 주홍콩 한국총영사관 초청객 한인 사회 주요 인사 등 6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민간교류의 장을 펼쳤다.

국경의 밤 행사 위해 1++등급 한우 등심 50kg 지원

본 행사에서 한우자조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우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선보이기 위해 1++등급의 최상급 등심 50kg을 지원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 만찬에 소개된 요리는 한식 만찬을



포함하여 총 43가지였으며, 그 중 한우 버섯 불고기, 한우 로스트비프는 행사에 참석한 홍콩 및 한인 사회 인사들로부터 부드러운 식감과 우수한 맛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이목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홍콩의 유력인사들과 시민들은 한국 쇠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맛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폭발적인 관심 속에 준비한 한우 요리는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한우를 맛본 참석자들이 홍콩 내 한우 식당과 판매점에 대해 묻기도 했다. 홍콩의 한우 수입사들은 참석자들의 한우 요리에 대한 호평으로 한우 공급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홍콩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홍콩총영사관 김원진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그간 홍콩과 한국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상기하며, 향후 양국이 관계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홍콩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이자 3대 수입대상국으로 중요한 무역파트너다. 앞으로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한우 요리를 선보인 만큼 홍콩 현지 내에서의 한우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과 홍콩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국경의 밤 리셉션에서 한우 요리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한우를 통해 홍콩에 한국의 맛을 전하고, 향후 한우가 홍콩 쇠고기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4

홍콩 언론 뜨겁게 달군 한우의 맛 한우산업시찰 후 언론에 한우의 우수성 소개돼

지난 9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홍콩 현지 바이어 및 언론인 초청 한우산업시찰’에서 한우의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맛을 본 홍콩 언론인들이 현지 매체에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전하며 현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한우가 홍콩 현지 매체를 통해 높이 평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콩에서의 한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뢰도 높은 현지 매체를 통해 한우 홍보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한우의 맛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한우 마케팅의 일환으로 ‘홍콩 현지 바이어 및 언론인 초청 한우산업시찰’을 진행했다. 당시 홍콩 언론인들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우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직접 듣고, 국내 유명 식당에서 직접 한우를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홍콩인 입맛에도 최고임을 알려

한우산업시찰의 효과가 점차 발휘되고 있다. 홍콩 현지 매체를 통해 한우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며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10월 발간된 홍콩 주간지 ‘WEEKEND WEEKLY’에 한우에 대해 소개됐다. 주간지 ‘WEEKEND WEEKLY’는 홍콩 내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여행잡지로 1049호에서 무려 8페이지에 걸쳐 우리 한우 농가, 한우의 소고기 이력제 등에 대해 소개하며, 한우가 최고의 맛과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언론인들이 한국에서 직접 맛을 본 한우에 대해 극찬했다. 한우숯불구이, 한우 불고기, 대형 한우 초밥 등 한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소개하며 홍콩 사람들의 입맛에도 한우가 매우 잘 맞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더 많은 매체에 노출 예정

한편 앞으로도 한우에 대해 더 많은 매체에 노출될 예정이다. 이미 발간된 주간지 ‘WEEKEND WEEKLY’를 비롯해서, 4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산층에 인기있는 유료 경제일간지 ‘HongKong Economic Times’, 홍콩 내 유명 식품 언론사 ‘Foodie’ 등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호의적인 언론의 평가를 통해 한우에 대한 홍콩 현지에서의 인식 제고와 수출량 증대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5

‘2019년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열려 미래의 축산 인재들에게 응원의 장학금 전달

지난 10월 29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2019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된 한우사랑 장학금 사업은 미래의 한우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축산관련학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미래의 축산 인재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2019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 전국에서 선발된 미래의 축산 인재들이 모였다. 한우자조금이 전국 농·축산업계 고등학생과 축산·수의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모집해 최종 선발된 21명의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중학교 때부터 농부가 되고 싶었고, 제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맞는지 고민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우자조금에서 주신 이 장학금이 마치 저보다 먼저 이 일을 하고 계신 한우 농가 여러분들이 너의 선택이 맞다고,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2019 한우사랑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라며 기쁨의 소감을 전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소감과 포부를 밝히는 학생들의 눈이 열정과 의욕으로 빛났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H 연합회 해남군회장으로 농민운동을 막 시작할 당시, 성적이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 한우사랑 장학금은 한우농가가 드리는 장학금인 만큼 훌륭하게 성장해서 미래의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후계농 확보에 힘쓸 것

이날 한우자조금은 전국 농·축산업계 고등학생과 축산·수의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최종선발된 한우사랑 장학생 21명에게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우사랑 장학생은 축산업 등록기준 한우 사육 농가(부모, 외조부모, 본인) 중 농축산업계 고등학교 축산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축산·수의 관련학과 대학생이며 장학생은 지역별 배분 인원내에 맞춰 심사평가 우수자로 선발되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 6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 15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장학생들과 그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동행한 가족들의 얼굴도 밝았다.

고등학생 아들과 동행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여기 모여있는 어린 학생들이 한우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 다들 고맙고 귀하다. 한우자조금이 앞장서서 후계농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오늘 여러분들이 수여받은 장학금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들이 한뼘 한뼘 소중하게 모은 자금의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기탁한 것”이라면서 “배움의 길을 갈고 닦는데 소중하게 쓰여 오늘처럼 여러분이 후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한우사랑 장학생 미니 인터뷰

“한우자조금에게 받은 응원에 보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동물자원과 강민준 학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제 꿈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대학교도 축산학 쪽으로 진학할 것이고,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한우산업을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홍해송 학생

중학생 때 처음으로 농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가기로 결정한 길을 향한 응원이라고 생각하니 참 기쁩니다.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 쪽으로 더 공부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첫 소를 키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한우학과
장혁 학생

한국농수산대학을 다니고 있는 만큼 이번 장학금을 통해서 직접 소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배운 사양관리 방법을 적용시켜 보고자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선발되어서 기쁩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송아지를 구입해서 출하시킬 때까지 저만의 방식으로 직접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 소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해외 비육산업 현황조사’ 실시

미국 육우산업 현황 및 자조금
운영구조 파악 위해 미국
농무부, 쇠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육우협회 등 방문

미국 대상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 실시해

축산 선진국 비육우산업의 정책 및 전략을 파악하고, 자조금 운용 사례 및 운영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우자조금에서는 올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해외비육산업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우자조금을 비롯하여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종축개량협회 등 한우산업 지도자,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등 총 15명의 조사단으로 구성되어졌으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육우산업 현장조사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조사료 생산 및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미국산 알팔파 수급현황 및 가격,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 덴버로 이동하였다.



조사 결과 한우 농가에 계도할 예정

덴버에서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정찬진 교수로부터 미국 육우산업과 미국 자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미국 쇠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실무자로부터 미국 자조금의 운영 현황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미국 쇠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세미나가 종료된 이후 조사단은 전국육우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의 역할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미국의 대형 육우도축장인 JBS에 방문하여 미국 육우 도축시스템을 견학하였다.

조사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미국 농무부에 방문하였으며 농촌지원청의 부국장과의 면담 및 미국 내 육우산업과 관련된 지원정책, 보조금 지원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한우자조금에서는 금번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 작성 후,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한우농가에 계도할 예정이다. 🌟

7

‘2019 한우자조금 전문가 자문단 회의’ 진행
한우 소비 촉진 홍보 방안에
발전적 의견 나눠

전문가와 홍보 사업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월 24일 한우자조금이 전문가 자문단과 한자리에 모여 한우 소비 촉진 홍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민경천 위원장, 장기선 국장 및 홍보 사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 한우자조금 전문가 자문단’은 축산·의학·마케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의 조철훈 교수와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주임과장인 황인철 의사, 오라한의원 박미경 원장(한의사), 홍보컨설턴트인 이원두 솔로몬스터 대표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한우자조금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TV 및 라디오 광고, 방송협찬, 언론 홍보, 오프라인 행사, 기업체 연계 MOU,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한 설명 후 앞으로의 홍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빠르게 바뀌는 소비 패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전문가 자문단들은 “올해 한우자조금이 진행한 홍보 사업들이 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홍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보자”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박미경 한의사**는 “식치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 노년기의 면역, 병후 회복식 등 한우의 영양학적 가치가 훌륭하다. 소비자들은 항상 접하는 음식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고기와 황기,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소고기와 토란과 같이 음식을 짝짓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철훈 교수**는 “가장 완벽한 소고기 이력제를 가진 한우’라는 타이틀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최근 식품업체가 새벽배송 등 온라인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원두 대표도 “동의한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 작년부터 모바일이나 콘텐츠를 통해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와 전자상거래가 결합한 형태로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시청 후 구매와 연결되는 콘텐츠 미디어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인철 의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비선호부위의 소비 촉진 등에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선호부위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들의 소중한 자조금으로 진행되는 홍보이니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늘 들은 자문단 여러분의 전문적인 견해와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겨울철 축사 관리 요령



한우의 생산능력은 사양관리·일상관리는 물론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계절 중 겨울은 특히 낮은 기온, 강한 바람, 축사 내의 지나친 습도 등으로 생산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의 체감온도 살피기



소의 체감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0℃일 때 바람이 초속 1m로 불면 소의 체감온도는 영하 6~10℃까지 떨어지므로 축사 틈새를 철저히 막아주고, 눈이나 비를 맞아 생긴 피부 표면의 물기는 되도록 빨리 제거해준다.

사료량 늘리기



추운 환경에서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농후(곡물)사료 양을 10~20% 정도 늘린다. 특히 비타민과 석회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쉬우므로 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호흡기 질병 대비하기



추위에 대비해 우사 앞뒤를 압축포장 벧짚으로 틀어막고 원치커튼까지 가리면 우사 내 습도가 올라가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쉽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사의 습도를 낮추고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축사 시설 화재 예방 안전 수칙



겨울철 축사 화재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적 요인이다. 대부분 전기배선, 전열기구,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아래의 안전 수칙을 체크하고 숙지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축사 화재를 예방하자.

No.	점검 항목	✓
1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는다.	
2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를 교체한다.	
3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한다.	
4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5	천장에 설치된 전선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 기구의 먼지 제거 등 청결을 유지한다.	
7	배전반, 분전반, 전기기계 기구 등은 반드시 접지 공사를 실시한다.	
8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등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한다.	
9	사용하는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10	보온등에 철제 원형망을 설치해 소가 건드려 발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축사 내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한다.	
11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에는 배관 공사를 실시한다.	
12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한다.	
13	축사 내 습기가 높으면 누전의 위험이 높다. 유해가스 제거 및 습기 제거를 위해 최소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4	축사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및 수시 점검으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시에 축사용 고압세척기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비치한다.	
15	열풍기나 온풍기 상단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는 축사에서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기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 요령



겨울철에는 병원체의 야외 생존성이 길어지므로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소독 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또한, 축사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하고,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소독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축사바닥 및 토양

- ①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소독한다
- ② 축사바닥이나 흙은 알칼리제를 사용하되 사용 시 주의한다.
- ③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 ④ 새로 입식 시 소독제가 마른 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 입식한다.

차량 소독

- ① 차량에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소독한다.
- ② 차바퀴 차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 ③ 운전석 등 차량 내부는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닦는다.
- ④ **강알칼리제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신성제제 등을 사용한다.**



겨울철(동절기) 소독 안전수칙

1. 출입차량 소독 요령

- ▶ 이동통제초소 50~100m 앞에 서행표지판(야광)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
- ▶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 관련 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 축산 관련 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 ▶ 기온이 섭씨 0℃ 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 ▶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및 온풍기 등 설치

2.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 ▶ **생식회**(과립형)를 사용할 때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 이상의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
- ▶ 염기제제는 부식성 강하므로 차바퀴와 차체 등에 사용 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 ▶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출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미닝아웃 (Meaning Out)



그동안은 구매 결정의 주요소가 가격과 성능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신념이 지갑을 여는 기준이 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 제품이어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면 구매하지 않는 미닝아웃 현상은 먹거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닝아웃 (Meaning out)이란?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가리키는 미닝(Meaning)과 밖을 가리키는 아웃(Out)의 합성어로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정치적 견해를 소비 행위를 통해 밖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소비하지 않겠다”,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먹겠다” 등과 같은 가성비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아의식이 강하고 의견과 취향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세대가 SNS를 통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념에 #해시태그를 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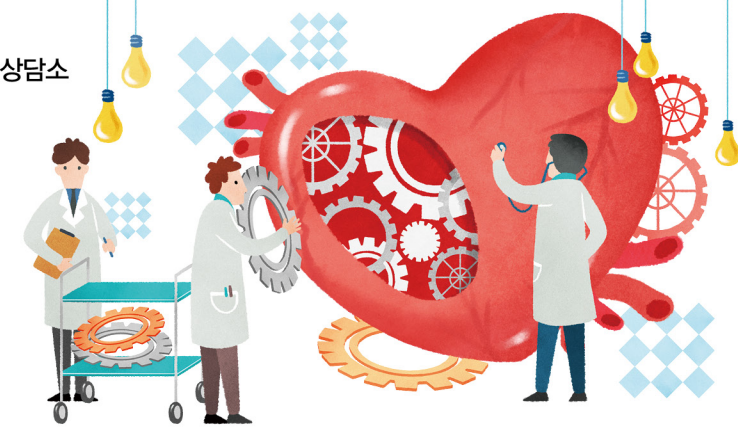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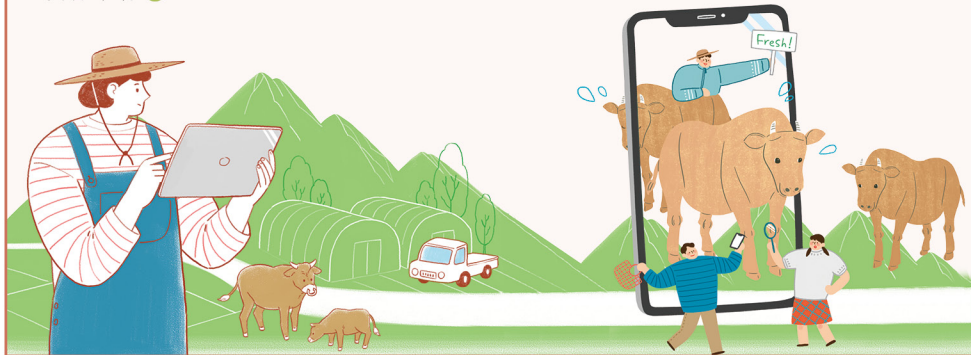
지난 초여름부터 이어진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도 미닝아웃의 일환입니다. ‘NO JAPAN’,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이 해시태그를 타고 SNS에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뒤 SNS에 인증 사진을 공유하고,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국에 사과할 때까지 일제 제품의 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글씨를 올리는 릴레이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 대신 ‘광복절 기념 캠페인’, ‘독도를 모티브로 한 제품 출시’ 등 애국 마케팅을 진행하는 국산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식품시장에도 미닝아웃 열풍

미닝아웃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식품시장입니다. 먹거리의 경우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인 만큼 미닝아웃을 통해 환경, 동물 보호 등에 중점을 둔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은 더 비싸더라도 신선도와 품질에 신뢰가 가는 국산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성비만 따진다면 선택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격이 더 높아도 이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국민의 믿음

미닝아웃은 이제 먹거리를 고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구입하는 소고기 원산지는 국산(59.3%)이 수입(40.7%)보다 높았습니다. 가격보다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국내산 식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은 국민들의 국내산 식재료에 대한 신념에 신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위험성 증가 허혈성 심장질환

겨울에 접어들며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돼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10대 사망원인 1위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빌 클린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심근경색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왕성하게 활동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의료진에게 건강을 돌봤던 그들이 심장질환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 10대 사망원인’의 1위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꼽았다. 또한, 2013년 발행된 『OECD health data』에는 2011년 우리나라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3명으로 집계되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며, 증상이 다른 질환들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방문하게 된다. 심장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경우는 전체 돌연사의 20% 미만. 대개 어느 정도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펌프로,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심장에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관상동맥이 있는데 나이가 들고 여러 환경 요인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 생겨난다. 죽상경화반이 커지면 혈관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때로 혈관이 심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감소되어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협심증이다. 또한 죽상경화반이 손상을 입으면 그 자리에 혈전이 생긴다. 이로 인해 혈액이 심근으로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극심한 흉통이 발생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심근경색증이 나타난다. 이를 통칭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른다.

쥐어짜는 듯한 흉통, 간과했다간 낭패
환자는 대부분 중·노년층이지만, 젊다고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젊었을 때 제

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혈관과 동맥이 뻣뻣하게 변하는 ‘죽상경화증’이 나타나기 쉽고, 이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따금 나타나는 쥐어짜는 듯한 흉통은 심장혈관이 정상인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심근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선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게 좋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수많은 예방법이 비방처럼 떠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습관, 금연 등 익히 알려진 예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법

1. 정기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되 자극적이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3.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
4.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지낸다.
5. 담배는 되도록 하지 말고 술도 피하는 것이 좋다.

10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기준일: 10월 1일~10월 23일

10월 한우육질 등급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 기준일: 10월 1일~10월 23일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수소(거세포함) 월령별 한우 사육현황

* 기준일: 2019년 9월 30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가임암소 두수(15개월령 이상): 1,482,736두 / 총 암소 두수: 1,965,066두(2019년 9월 30일 기준)

총 한우농장 수: 89,913호(2019년 9월 30일 기준)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한우 더보기] 클릭
- [한우 더보기]에서 [+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한우 더보기] 클릭
- [한우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당첨자발표 2019년 12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지난호 당첨자

한우육포
 유근희, 김으뜸

한우곰탕세트
 전경숙, 정미선, 조현정, 하승우

한우불고기버거
 강철호, 최예진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뜨끈하고 든든한
<한우곰탕세트> 7명



두툽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